# 새벽 출근길 산단 근로자 '든든한 한 끼' 약속

## 전주시, 7개 기관·단체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올해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새벽 출근길에 나선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산업단지 내 새벽 근무 노동자들이 1000원의 부담으로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재)전주시복지재단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 등 7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해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협약은 참여 기관·단체들이 산업단지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한 자리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사업의 총괄과 집행을 담당하고 (재)전주시복지재단은 후원금 접수와 관리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전주시는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는 식단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위생 점검을 맡기로 했고,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현장 간편식 배부를 지원한다.

(재)전주문화재단과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은 장소 제공과 더불어 이용 근로자들에게 카페 음료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원 관리와 운영 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기부와 공모사업 재원 연계 및 외식업계와 문화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이 함께 참여해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모델이자, 복지·경제·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 4900만원을 활용해 총 13회에 걸쳐 연인원 4325명의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시는 현장의 높은 호응과 결식 해소 효과를 확인한 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8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운영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천원의 아침밥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10개월간 총 158회 운영되며, 기존 주 1회에서 주 4회(화~금)로 확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는 매회 200명씩 연인원 약 3만1600명의 노동자에게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영양 간편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실외 배부 방식에서 벗어나 팔복예술공장 내 카페 공간을 활용한 실내 운영으로 전환해 근로자들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카페 음료 할인 혜택과 함께 예술공장에서 운영되는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안내해 근로자들이 식사와 함께 문화적 여유를 누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한 하루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국 유일' 전주 도서관 여행

## 시, 4월 4일~11월 14일 프로그램 운영… 접수 시작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시 '전주 도서관 여행'이 올해 정원과 지역서점을 품은 새로운 여행 코스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전주시는 오는 4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26년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538명이 참여한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주의 특색 있는 도서관과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 지역서점, 정원을 하나의 여행코스로 연결한 전국 최초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으로, 여행자들은 전용 버스에 탑승해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전주의 독서 정책과 도서관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올해 도서관 여행은 오는 4월부터 매주 토요일 3회(하루코스 1회, 반일코스 2회) 상시 운영되며 독서와 휴식(전주 정원 산책)을 결합한 여행코스가 새롭게 개발돼 지역서점과 덕진공원을 포함한 총 9가지 코스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코스'는 크게 총 5개 코스로 △도서관문화 코스(매월 1·3·5주)와 △기록문화 코스(2·4주)로 운영되며, '반일코스'의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 △책 연필코스 △책여정코스, 오후 △책 담길코스 △책다감코스 등 4개 코스가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도서관 대표 3대 책 축제와 연계 △특수학급 대상 '책누리' △직장인 대상 '워케이션' 도서관여행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책을 매개로 한 공간에 머물며 여행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인 '북스테이 도서관 여행'이 신설된다. 도서관과 지역서점, 북카페, 북스테이 숙소 등에서 2시간 이상 머물며 사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반나절 코스 △1박2일 코스 △상시 도서관 여행 연계 코스 등 3가지 코스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이용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올해 전주도서관 여행은 3월 3일부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회당 17명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매월 1일에 다음 달 도서관 여행을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노인의치(틀니) 임플란트 지원 확대 추진

전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노인의치(틀니)사업을 임플란트 지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의치(틀니) 지원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구강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 치료가 보다 적합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담과 지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로, 보건소 상담 및 1차 구강검진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후 대상자는 연계 치과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의치(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 남부시장 '모이장' 개관

전주남부시장에 전북에서 생산된 다양한 특산물을 만나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3일 남부시장 내 공동판매장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모이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전주문화재단 관계자, 인근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이장 여는 날(개관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범기 시장의 기념사와 전주시의원·유관기관의 축사, 수탁기관인 ㈜더레드의 운영계획 보고,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관한 1층(1424㎡) 남부시장 '모이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비롯해 식음료 판매 공간과 공연장 등을 갖춘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전주시는 3일 남부시장 내 공동판매장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모이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이장 여는 날(개관식)' 행사를 개최했다.

건물 2층(1639㎡)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서브컬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모이장은 크게 문화예술 공간인 '놀장'과 식음료 판매·여행자 휴식 공간인 '만나장', 팝업전시 공간인 '업장', 특산품 판매 공간인 '모다장'으로 구성됐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모이장) 운영을 맡게 된 ㈜더레드는 지역 내 공연예술기획 및 다양한 현장 운영 경험을 발판으로 로컬콘텐츠를 발굴하고, 새로운 공연 경험을 실행해 관광도시 전주의 패러다임을 확장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추진

전주시는 올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면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2년간 최대 4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중,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이상)해 온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참여 희망자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와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근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가구별 소득수준과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여부는 5월 중순 이후 공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 습관 형성과 생애 재무설계, 부동산 기초교육 등 금융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역량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